

로마서 6:1 – 6:23

1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2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5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13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19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23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 앞선 장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성화의 과정을 올바르게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은 6 장부터 성화의 과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6 장에서는 특히 죄와 싸우는 문제를 다룹니다.
- 6 장 1, 2 절은 5 장 20 절의 말씀, "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과 연관시켜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통한 죄 용서에 대해 이야기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록 용서는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사도 바울은 3 절 이하에서 침례에 비유하여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반론합니다. 우선 침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baptizo) 를 살펴보면 그 말에는 물에 잠기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한 마태복음 3 장 16 절도 "물에서 올라오셨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침례 과정에서 물에 잠기는 상황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을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이고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 5 절에서 7 절은 3, 4 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 절까지 비슷한 내용을 점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 5 절에서 사용된 '연합하는' 이란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같이 심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가지를 접붙이면 다른 가지들이 하나로 심겨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뿔뿔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 6 절에서 "옛 사람" 이란 표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죄에 묻혀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모습을 말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 13 절에서 불의의 '연장' 또는 의의 '연장' 이란 표현에서 사용된 '연장'이란 말은 때로는 '갑옷' (로마서 13 장 12 절) 이나 '무기' (고린도 후서 10 장 4 절) 라고 번역이 됩니다.
- 14 절은 죄가 믿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더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가 더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 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불의의 연장이 되던지 의의 연장이 되던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을 죄 짓는데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 15 절부터 23 절의 내용은 1, 2 절에 있는 질문을 한번 더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도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더욱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나타나는 부분이 17 절에 있는 '*전해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라는 표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 17, 18 절과 19 절은 불법의 종과 의의 종을 대비시킵니다. 불법 즉 죄의 종일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스스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 절에서 '사람의 방식' 이란 말은 바울이 19 절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주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적는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 20 - 23 절은 두가지 다른 종의 모습을 대비시킵니다. 죄의 종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